

인천 도립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

학생·학부모·주민 61% 찬성 학교 증축공사 본회의 통과

여자고등학교가 없어 여자 중학생들이 진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남녀공학 고등학교 추진이 본격화됐다.

1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을 통해 교실 증축 공사설계비 예산(3억1300만원) 확보와 지난달부터 실시한 인천시교육청의 도립고 남녀공학 전환 타당성 용역(중간보고) 설문조사 결과(평균 61% 찬성) 등이 이뤄지면서 도립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설계비 예산확보로 도립고 남녀공학 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셈이다.

또한 증축 설계비 확보에 힘을 보탠

것이 인천시교육청의 도립고 남녀공학 전환 설문조사 결과다. 도립고를 포함한 해당 지역 학생(59%), 학부모(62%), 지역주민(78%) 등이 모두 과반수(평균 61%)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문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도립고 남녀공학 전환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 초·중·고교 학부모 및 학생들은 학교 성별 유형 비교에서 △학생의 사회·정의적 역량 발달 측면(배려심·협동심, 정서적 안정감 등) △교실의 수업 분위기 △학교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각각 남녀공학이 단성 학교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도립고의 남녀공학 전환 관련된 질문에서는 학부모·학생·지역주민 모두 △서창동 지역의 여학생 학교선택권 확대(통학 편의성 포함) △서창동 여학생의 타지역 이사 방지 △양성평등 의식 고양 이성에 대한 이해와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내는 능력 육성 등의 문

항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이성 교제 문제 증가 △교사의 근무 여건 악화(생활지도, 민원증가 등)로 전보 시 기피 학교가 되는 불이익 △도립고 진학 선호도 감소 우려 등 문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존 남녀공학 반대 이유인 이성 교제나 성적 저하 문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립고의 남녀공학 전환의 타당성 판단기준에서는 교원을 빼고 모두 △교육의 질 개선 △미래 도립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어 학부모는 △서창동 지역 여고생의 통학 편의성을 높여주는 방안 실현 여부 △공학 전환을 실제 적용받게 되는 서창동 지역 초·중 여학생 학부모의 의견 △도립고 구성원의 의견 등 순으로 지역주민은 △공학 전환을 실제 적용받게 되는 서창동 지역 초·중 여

학생 학부모 의견 등으로 응답했다.

한민수(국민의힘, 남동5) 의원은 “서창동 지역의 여학교 부재로 매년 900명의 여학생이 장거리 통학을 감내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를 통해 도립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도립고 교육 주체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확고한 찬성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원동력 삼아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한 의원은 9대 임기 초부터 남동구의 여고 신설이 어려운 환경에서 서창동 여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및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도립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제안하고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에 관심을 촉구했다.

안종삼 기자



오석규(오른쪽 두번째) 도의원은 14일 김경일(오른쪽 네번째) 파주시장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설치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북부자치도 비전·설치 전략 논의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한편 “DMZ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에 약 2배 가량 크다고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북부도민들에게 어떤 생활편익을 창출하고 가져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DMZ 브랜드 가치가 실현되려면 국방부의 일일 방문객 제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파주시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DMZ(임진각 등) 개발 및 관광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향후 적극적인 투자 의향이 있다”며 “국방부와 경기관광공사가 전향적으로 DMZ 관광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인창 기자

경기교육 환경개선 해법 모색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 학부모 100인과 열띤 토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의원이 지난 13일 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탁토의에 패널로 참석해 교육환경개선 학부모연합회 학부모 100인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는 교육환경을 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교육환경개선 학부모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과 박옥분(민주당, 수원2)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녹색연합회, 학풍연합회의 회장과 회원 등 100인이 함께 경기미래교육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리로 오후 제9회를 맞이했다.

이날 토론회는 분야별 패널들 발표를 시작으로 8명씩 12개의 모듈별 원탁토의 배열을 갖추고 각 모듈에서 모은 의견



김호겸 경기도의원이 지난 13일 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탁토의에 패널로 참석해 교육환경개선 학부모 100인과 함께 경기미래교육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을 토대로 환경개선을 위한 논의와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고 각 분야별 패널들 발표를 끝으로 원탁토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 자리에서 식사예절과 대화로써 이뤄지는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인성함양을 위한 종합적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학부모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며 횡수로 정리되는 형식적 교육이 아닌 위촉된 전문가가 행하는 효율적이고 실

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줄이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며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인창 기자

청라~북항 연결 공사현장 방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 IC와 북항 배후단지 연결하는 청라지구~북항 간(대1-17) 연결도로 개통 구간 현장을 방문했다.

이 사업은 청라~북항 간 연결을 위해 약 460억원을 들여 인천종합건설 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8월 착공해 지난 11일 개통했으며, 연결도로 총 길이 1.5km, 폭 35m의 왕복 4~6차선 규모다.

북항은 인천신항과 더불어 인천의 4대 항만의 하나로 인천시 중구 북성동, 서구 원창동 일대에 원복·고철 등 인근 공장에서 필요한 산업원자재

화물을 주로 취급했다.

하지만 북항 배후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송유관으로 단절돼 중봉대로 일대의 교통혼잡이 발생하게 돼 배후연계 수송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달 15일 개통한 청라~북항 간(대1-16)연결도로에 이어 이번엔 대1-17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청라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함께 동인천 등 원도심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허 의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북항의 배후산업단지 지원은 물론, 비가공 화물 등을 수요지에서 직접 처리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항만 배후수송로를 잘 확보하면 인천시의 서북부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생활체육 활성화·인프라 조성 최선”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16일 수원청소문화센터 꿈의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민간장 놀이기 대회 개최식에 참석했다.

수원시출범기협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서영주 수원시출범기협회장 및 내빈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의 장 표창 수여 △경품 추첨 △출범기시범단 공연 △기념촬영 등이 있다.

김 의장은 환영사에서 “부상 없이 평소 연습하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어 즐거운 경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즐거움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

광주시 예산 1조5136억원 확정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추경안·기금운용안 원안가결

광주시의회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9일간 진행

된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총 6건의 시정질

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활동들 살펴보면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2024년 예산안 일반회계 1조 2515억3626만3000원, 특별회계 2648억1900만원 등 총 1조5163억5526만 3000원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0건 중 ‘광주시 공영장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7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지역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구학모 기자





옥외광고 LED전광판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 드립니다.
서울시청·명동·동대문·종로3가·강남·홍대 등 다수지역 송출

문의 032)508-0006

일간경기 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47~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